

“5만원 쓰고 2000만원 받으세요”...지방 ‘소비 복권’ 푼다

정부, 지방소비 활성화 방안 발표...10월 9일까지 전통시장 등 이용 대상 미술·공연예술 할인쿠폰 추가 발급...9월부터 관광·소비행사도 진행

정부가 광주·전남 등 지방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소비 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비가 회복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딘 비수도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2등(200만원·50명), 3등(100만원·600명), 4등

(10만원·1365명)은 수도권 점포에서 결제한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다.

소비 복권 당첨자는 총 2025명이고 전체 당첨금 규모는 10억원이다.

응모권은 총 5만원 단위로 최대 10장씩 주어져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혹은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직접 응모할 수 있다.

또 기존에 1인당 최대 10매까지 제공되던 미술 전시·공연예술 할인쿠폰은 비수도권 전용으로 일부 추가 발급된다.

인구감소 지역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자의 할인 혜택은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중앙부처·공

공기관·민간기업·수도권 지자체 간 상생 자매결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부처 및 기관은 자매결연 지역을 연 1회 이상 방문해 기관 행사를 개최하고, 지자체는 숙박 및 체험 할인 등을 통해 관광과 지역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달 시작하는 ‘숙박세일 페스타’를 시작으로, 9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및 동행축제, 10월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관광·소비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열고 지방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9월 시작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는 국내선 항공운임 2만원 할인, 인구감소지역 행 버스 노선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으로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붙임’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수산물로 원기충전”...이마트, 말복 할인행사

13일까지 민물장어·전복 반값

이마트는 “말복(9일)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일주일간 민물장어와 전복을 반값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지난달 초복 때 나흘간 22만마리의 닭을 판매한 이마트는 말복 행사에는 수산물 보양식에 집중한다.

행사가 기준으로 손질 민물장어는 작년 말복 때보다 35% 저렴한 100g당 3990원에 판매된다.

장어는 올해 치어 입식 물량이 늘어 공급량 확대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복은 경기 불황에 소

비가 줄며 시세가 하락세다.

이마트는 산지 시세에 맞춰 행사 빈도와 할인을 높여 고객 혜택을 확대해 최근 한 달 장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71.2%, 전복은 13.4% 각각 늘었다고 강조했다.

수산물과 곁들이기 좋은 화이트 와인 초특가 행사도 준비됐다.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은 토종닭 전품목을 40% 할인하고 ‘무항생제 두 마리 영계’ 제품은 40% 할인에 행사카드 결제 때 추가 10% 할인을 적용한다. 키위, 포도 등 과일도 행사가에 선보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통시장 재난대응 강화...냉방설비·화재공제 보상 확대

중기부, 소상공인 간담회서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상인을 돕기 위해 냉방 설비 설치와 화재 공제 보상 확대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해마다 기록적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 또는 공용 구간에 쿨링포그, 이

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개별 점포당 최대 500만원이며, 내년 사업 공고는 이달 말 시작된다.

또 전통시장 상인 대상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로의 60~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연 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속히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 현황 조사, 금융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재해 확인서 발급, 상품 접수 시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화상과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한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광주경총, 직업제고 진로 탐색 지원...해외 산업 현장 탐방단 발대

호원 터키 공장 등 방문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 현장 탐방단을 꾸려 해외 우수 산업 현장을 찾는다”고 7일 밝혔다.

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동일미래과학고, 송의과학고, 전남공고 등 총 6개 직업계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탐방단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튀르키예를 찾아 ㈜호원 오토모티브 터키 공장, 현대자동차 이즈미트 공장, 이스탄불대학교·부르사 기술대학, 한국전 참전 기념비 현화 등의 일정에 참여한다. 광주경총은 학생들이 현지 기업과의 간담회와 산업 현장 투어 등을 통해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광주경총은 지난 5일 광주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3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2025 빛고를 직업 교육 혁신지구 지역기업 해외사업장 탐방 프로그램 발대식’에 참석해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경총은 이번 탐방단의 체류비, 항공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회원사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산업 시설 방문 협의를 주도했다. 체험



광주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7일 인천공항에서 튀르키예 출발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탐방단은 튀르키예에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체류비, 항공료, 운영비 등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원했다.

〈광주경총 제공〉

중심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지 가이드와 통역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찬 광주경총 부회장은 “이번 해외 탐방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미래 직무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도전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의 성장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유

관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총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역 직업 교육 혁신지구 사업 연계를 통해 해외 사업체 연구 확대, 청년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실손청구 전산화 동네 의원·약국까지 확대

10월 25일부터 9만6000곳 가능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9만600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험회 등과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참여 및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작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2단계)까지 참여 대상이 늘어난다.

지난 5일 현재 총 6757개 요양기관(병원 1045개·보건소 3564개·의원 861개·약국 1287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1단계 참여율은 약 59.1%이다.

2단계 시행 대상인 의원·약국 중에도 선제적인 참여를 독려 중인데, 2단계 참여율은 약 2.2%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전산화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참여 병원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참여 요양기관에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도 신설했다.

보험업계 등은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저리) 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민과 의료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실손24’ 대국민 홍보도 한다.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 시 네이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 참여 요양기관 및 EMR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료와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의 연계 방안 모색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27.68	(+29.54)	
▲ 코스닥	805.81	(+2.32)	
↓ 금리(국고채 3년)	2.408	(-0.022)	
↓ 환율(US D)	1379.70	(-9.80)	
〈오후 5시 22분 기준〉			

광주상공회의소

용산 ‘비즈니스 라운지’ 인기

이용객 20만명 돌파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회)는 “서울 용산역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라운지(라운지)’가 2013년 개소 후 누적 이용객 20만명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라운지는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 광역·특별자치단체와 9개 상공회의소가 호남지역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용산역 내 설치한 것으로, 2022년 1만 4865명, 2023년 2만 688명, 지난해 2만 4983명 등 해마다 이용객이 늘고 있다.

라운지 회의실 이용을 통한 성과도 컸다. 지역 기업의 수출·납품 계약과 정부 지원과제 협의, 공공기관 간 국가과제 논의 등 다양한 회의가 진행됐고 지난해 총 5524억원 규모의 크고 작은 계약이 회의실에서 체결됐다.

용산역 4층에 있는 라운지는 광주·전남·전북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임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액체형 세탁세제 성능·가격 ‘천차만별’

소비자원, 8개 제품 품질 평가

유해물질·생분해 기준 모두 충족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액체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세척 성능과 가격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고 7일 밝혔다.

기름·단백질 등 일반오염과 피지 등 인체 분비물, 혈액·잉크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된 세척력 평가에서 기름·단백질 오염 세척에선 6개 제품이 ‘양호’ 등급을 받았고, ‘비트 실내건조 시트러스 블라썸’, ‘테크 실내건조 베이직 뉴’는 보통 등급으로 세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잉크 오염에서는 ‘퍼실 퓨어프래쉬 플러스’가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고 양호한 제품이 5개, 보통인 제품이 2개였다.

피지 등 인체 분비물 세척력은 평가 대상 제품 모두 양호해 제품 간 차이가 없었다.

일정 높이에서 제품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의 누액 여부를 확인하는 ‘용기 강도’ 시험

에서는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퍼실 퓨어프래쉬 플러스’ 제품을 뚜껑을 닫은 채로 거꾸로 들었을 때 뚜껑 사이로 세제가 새어 나오는 것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소비자원에 품질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

유해 물질 안전성 시험에서는 벤젠, 비소 등 금지·제한 물질이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환경성과 관련해서도 전 제품이 생분해도 기준을 충족했다.

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는 8개 중 7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제품별로 최소 1종에서 최대 5종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세제에 따라 1회 세탁 비용이 3배 이상 벌어져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컸다고 분석했다.

드럼세탁기에 3kg을 세탁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1회 세탁 비용은 ‘엑츠 퍼펙트 실내건조_비’가 56원으로 가장 값고, ‘스니글 액체 세탁세제 블루스 파클 플러스+실내건조’가 176원으로 가장 비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사들 7월 시총 8850억 감소

한전 전월 대비 4815억 하락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주가 하락 여파로 지난 달 광주·전남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885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5년 7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재 상장법인 37개사의 시가총액은 7월 말 기준 31조 4114억원으로, 전월(32조 2963억원)보다 2.7%(8850억원) 감소했다.

시가총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한전의 하락세였다. 한전은 전월 대비 4815억원의 시가총액이 줄며 지역 전체 시총 하락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광주·전남 상장법인(15사)의 시총은 전월보다 2.6%(7978억원) 감소한 29조 7471억원에 머물렀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22사) 시총도 5.0%(872억원) 줄어든 1조 6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광주는 1.4%(371억원), 전남은 2.9%(8479억원) 각각 감소하며 시총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전남의 경우 한전이 있는 만큼 한전 주가 변동이 시총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최근 화제가 발생한 금호타이어의 시총이 431억원 증가해 전체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강동씨엔엘이 85억원 늘어나 증가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투자자의 주식 거래 규모도 전월보다 소폭 줄었다. 7월 광주·전남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3조 7246억원으로, 전월보다 0.5%(172억원)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이 2조 6.597억원으로 2.9% 증가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1조 650억원으로 7.9% 줄었다. 이는 광주·전남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종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풀이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